

## 오리고기 불모지 일본을 가다.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일본에서 오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에도(江戸)(1603~1867년)시대부터이나 오리가 상업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것은 뒤늦은 1970년 초이다.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네발 달린 가축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어서 육류의 공급은 두발 달린 오리나 닭, 그리고 물고기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일본 에도시대부터 이미 오리고기가 귀하고 맛있는 식품이라는 일본 소비자의 인식이 뿌리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상업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오리는 오사카 오리(아히루, 家鴨)라고 불

려지고 있으며, 이는 오사카 농림종합기술센터에서 야생종을 고정시킨 것이다.

오리 관련 농협(種 아히루 농협)이 유일하게 오사카에만 설립되었다는 것도 일본에서 오사카가 오리의 주산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는 오리농협이나 오리협회와 같은 생산자 조직이 없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물론 일본의 “오리협회”라는 조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오리고기 수입업자 주도로 일본 내 오리고기 유통업체가 회원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전국에 50개 정도가 있으며, 사업수행보다는 일종의 친목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일본 가금육 시장의 특징으로 육계 생산은 감소되는 반면 토종닭(지도리, 地鶏)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리고기는 토종닭보다도 고급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오리고기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약 50만마리의 오리가 상시 사육되고 있는데 이는 종오리까지 포함한 숫자이므로 연간 5회전을 가정하면 연간 250만수 내외의 오리가 300~500호 농가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오리가 가장 많이 소비된 것은 1970년대로 12,000톤으로 피크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내지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GDP(국내 총생산)면에서 한국의 5배, 축산물 생산액면에서는 한국의 3배, 인구면에서도 한국의 2.7배, 1인당 GDP면에서는 한국의 1.9배, 심지어는 계란 1인당 소비면에서까지 한국의 1.3배를 자

【표 1】 한국대 일본의 경제규모 및 일부 식품 생산 및 소비량 비교

항목	한국(A)	일본(B)	B/A
인구(백만명)	48	128	2.7배
GDP(2006)(십억달러)	885	4,491	5.1배
1인당 GDP(2006)(달러)	18,334	34,125	1.9배
축산물 생산액(2007)(십억엔)	11,277	34,144 (24188억엔)	3.0배
계란 1인당(개) 소비량(2005)	226	301	1.3배
오리고기 총 소비량(천톤)	146(07)	12(피크시)	0.08배



(일본 수입가금 협회 上田幸男(유키오 우에다)회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흰머리를 필자(뒷줄 가운데)와 한국오리협회 이창호회장(뒷줄 오른쪽)이 만나고 있다.)

랑하면서도 유독 오리고기 총 소비량만은 한국의 1/10도 못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일본이 오리고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나머지 오리고기 시장이 불모지로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일본의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필자 등이 지난 2010년 2월 초 일본 동경지역에서 1차적으로 4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본 소비자에 대한 오리고기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sup>1)</sup> 오리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7.7%에 달했으며 그 중 오리고기를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인 소비자도 49.1%나 되었다.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1.1% 응답자가 “맛이 있고 영양식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64.4%의 응답자는 앞으로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거나 현상 유지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오리고기 요리 1인분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Willing-To-Pay; WTP) 가격에 대하여 질문한바, 1,634엔(21,242원)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적에 거대 오리고기 시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금육 수출

이 중단된 일본시장에 한국의 오리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한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발의 영향으로 2004년 및 2007~2009년에는 오리고기 및 기타 부위를 수출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AI 영향이 없던 2002년에는 630톤의 오리고기 및 기타부위를 수출한 바 있고 그 중에서 613톤(97.3%)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따라서 국내 오리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AI 청정국 지위를 받아내어 일본 오리고기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 등이 (주)쿡푸드(COOK-FOOD)사 사장이며 일본 수입 가금 협회 회장을 면담한 결과 한국이 AI 청정국이 되고 한국 오리제품에 대하여 왁스, 농약, 사료, 인플루엔자 등 관련 규제사항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작성된 명확한 자료만 제공 된다면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오리고기를 얼마든지 수입을 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일본은 오리고기 수입을 전적으로 타이완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9년에 4,000톤의 오리생고기를 타이완으로부터, 5,000톤의 가열된 오리제품(훈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러나 타이완으로부터의 생오리고기 수입과정에서 불안정한 공급과 AI의 위험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나쁜 이미지(저질만두, 김치, 농약)로 인한 거부감을 오리고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오리 산업은 오리고기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세를 호기로 삼아 가일층 위생과 방역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오리고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데 업계의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의 오리고기 시장을 한국이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1) 이 조사는 현재 계속 추진중임